咸安 趙氏 宗會報

發行人：趙鏞韶
編輯人：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126
TEL：(0552)83-6787
FAX：(0552)83-6787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825
FAX：246-2825

# 宗事會館建立부지 喜捨

## 趙鈺宗員 제의에 모두 감복

### 建立해주실 篤志家 찾기로

### 諸般 宗事運營에 새 轉機마련

漁溪선조 후손이 약23만명에 달하고 있으면서도 咸安趙氏宗事會館을 갖지 못하고 전세 2층 한칸을 빌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온 한 宗員이 회관건립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선뜻 나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사운영회 회칙에 따르면 선산(先山)과 재각(齋閣) 등이 咸安郡郡北面에 산재하고 있어 이의 관리를 위해 사무실을 郡北에 둔다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종사운영회 창립20년이 넘도록 사무실을 마련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 郡北面中岩里에 거주하는 趙鈺(63·鏞)종원이 회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선뜻 나선 것이다.

독지가(篤志家) 鈺종원이 제공하겠다는 터는 郡北面 간선도로변으로서(현사무실 건너편) 평당 4백여만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 30평이다.

鈺종원이 소유한 대지는 모두 1백50평인데 현재 32평에 3층 건물이 섰고 나머지 1백20평가운데서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싶은 면적에 후손대대로 영원히 사용하라고 제의해 온 것이다.

鈺종원은 소년시절 가난하게 성장하여 항상 더불어 살고 싶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중 이번 선조를 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한없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종사운영회는 고마운 一家의 뜻에 감복하여 임원회를 소집, 鈺종원의 참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건물을 지으줄 독지가를 찾기로 하였다.

**완공을 눈앞에 둔 응암재**
7월5일 현재 석축·도장공사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응암재 공사현장

## 鷹巖齋공사完工단계

### 石築·도장등 계획대로 진행

전국에서 답지 되고있는 宗員들의 현성금으로 건립되고 있는 응암재(鷹巖齋)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고있다.

정원및 묘소(墓所)앞 조경(造景)을 제외하면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정당(正堂)공사는 마루(대청)공사와 미장공사, 천정공사까지 끝냈고 부속건물인 대문체 화장실 담장공사 주차장을 뭉하는 소문(小門)공사도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축담 석축공사와 마당 석조(石造)공사 1부 도장(塗裝)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창호(窓戶)는 固城背屯 金永俊씨에 의뢰, 별도로 제작되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끼워 도장과 인테리어가끝나면 건축공사는 100% 완성된다.

조경공사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연구중인데 애당초 응암재 정원에 잔디를 심을 예정이었지만 연간 3~4회 제초(除草)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콩자갈을 깔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또 어계선조 묘소앞 연못 주변과 묘소 진입로 조경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4일(음력 10월12일 어계선로 묘사날)까지는 차질없이 왕성될 것이다.

한편 연못앞 논 3백여평은 여러곳의 흙을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行列順〉 〈3차〉

▲趙福奎(參議公派·日本) 東京慶尙南道道民會會長 1천만원
▲趙桂濟(參議公派·日本) 在日本實業家 1천만원
▲趙樟浩(濟·澗松堂公派·日本) 愛知縣韓國人經友會 會長 1천만원
▲咸安伽倻邑花樹會 5백90만원
▲趙忠來(大笑軒公派·日本) 在日本實業家 5백30만원
▲釜山花樹會 5백만원
▲趙東濟(參判公派·日本) 4백만원
▲咸安代山面花樹會 3백79만원
▲咸安法守面花樹會 2백91만원
▲趙鏞參(斗巖公派·日本) 在日本實業家 2백60만원
▲馬山花樹會 2백만원
▲趙義濟(澗松堂公派·大邱) 世元物産(株) 社長 2백만원
▲慶州花樹會 1백60만원(2次)
▲趙鏞先(參議公派·蔚山) 낙원장 대표 1백만원
▲趙栢濟(大笑軒公派·釜山) 東進電子工業(株)
▲趙政雄(濟·大笑軒公派·釜山) 和信工業社 社長 1백만원
▲趙萬濟(大笑軒公派·郡北) 郡北石工場 代表 1백만원
▲趙성제 1백만원
▲趙成來(參判公派·大邱) 商業 1백만원
▲趙在先(執義公派·馬山) 事業 1백만원
▲同知公派明月會宗中 1백만원
▲參判公派公州宗中 1백만원
▲節度公派僉正公棠陽齋後孫親睦會 1백만원
▲蔚山花樹會 1백만원
▲釜山靑年會 1백만원
▲蔚山固城公派門會 1백만원
▲咸鎭公派宗中 1백만원
▲郡北面合村里花樹會 84만원

## 各花樹會 정기총회

▲5월 17일 咸安郡·宜寧郡연합화수회 대의원회가 無盡亭에서 개최, 회장에 穆來종원이, 부회장에 性習(의령) 彬奎, 鏞俊(함안)종원이, 감사에 鏞達, 晟濟종원이 선출되고 총무에 富濟종원이 지명되었다.

▲5월 18일 咸安郡郡北面화수회 정기총회가 군북면사촌리 西山亭 강당에서 개최。 회장에 性勳종원이, 부회장에 性天、鏞燮종원이, 감사에 경제, 顯燮종원이 선출되고 총무에 快濟종원이 지명되었다。

▲5월 20일 密陽화수회가 시내 三門洞 영남체육관에서 개최, 회장에 永壽(鏞)종원이 유임되고 부회장에 鏞訓, 元濟, 纖濟, 永來종원이 선출되고 총무에 相濟종원이 지명되었다.

▲5월 28일 釜山화수회가 성지국민학교 강당에서 개최, 회장에 瑞奎종원이, 부회장에 鏞駿종원등 9명이 유임되고 穀濟종원이 추가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2명이 유임되고 顯杰종원이 추가 선출되었다.

▲5월 28일 大邱화수회(회장 趙宗浩)정기총회가 동촌유원지 「로라장식당」에서 종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이날 전회장 鏞守종원과 會來전총무에게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이밖에 경북대학교 국학과 趙京子종원등 5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5월 28일 昌原화수회(회장 趙鏞憲) 정기총회가 중앙동송림에서 1백20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임원선출은 없었고 종사운영회 감사 洋來종원의 숭조사상강좌가 있었다.

▲6월 10일 蔚山화수회(會長 趙鏞德) 정기총회가 공업탑로타리옆 신라그릴에서 宗員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이날 咸趙종사운영회 趙龍韶 회장이 참석하여 종원들을 격려했다.

## 宗告

宗員 가운데 족보 甲辰譜(서기 1664년 발행) 戊午譜(서기 1738년 발행) 庚子譜(서기 1780년 발행) 乙酉譜(서기 1825년) 丁酉重活印譜(서기 1897년 발행)를 소장하신 분은 한안조씨종사운영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宗會報는 家統資料

宗會報는 咸安趙氏 종중(宗中) 소식을 전하고 후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선조의 뿌리」등을 게재(揭載)하는 교과서(敎科書)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게재중인 「선조의 얼」과 앞으로 연재할 언행록(言行錄)을 사실(史實)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것입니다.

宗員들께서는 이 宗會報를 읽으신 후 버리지 마시고 모아 철(綴)해 두셨다가 다음 세대에 전하여 가통(家統)을 잇는데 자료(資料)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創刊號 부터 구하고자 하는 일가들은 아래 주소대로 연락 주시면 곧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중구 영주동 151-6 趙英濟(051) 463-1572〉

咸安發展에 함께 同參합시다

民選 初代 咸安郡守

趙性暉 (同知公派)

(0552) 82-1101-9

# 海外宗員 鷹巖齋重建 적극 參與

▲趙鏞元 부산시의원

▲趙亨來 곡성군수

▲趙性暉 함안군수

▲趙雄來 경기도의원

▲趙順濟 대구시의원

▲趙修亨 부산시의원

▲趙壽濟 함안군의원

▲趙庠濟 함안군의원

▲趙鉦濟 함안군의원

▲趙鏞文 함안군의원

▲趙興來 부산북구의원

趙弘濟 부산동래의원

▲趙顯松 함안군의원

▲趙碩濟 함안군의원

▲趙鏞洙 울산시의원

▲趙顯大 부산동구의원

▲趙顯坤 부산동구의원

▲趙玟來 사천시의원

▲趙好濟 진주시의원

▲趙鏞憲 창원시의원

▲趙鏞潔 대구수성구

▲趙鏞漢 대구수성구의원

▲趙成福 남해군의원

▲趙幸典 대구수성구

## 2차에 6천여만원 獻誠

### 咸鏡公派서도 참여

응암재 중건공사에 멀리 일본에 거주하는 많은 宗員들도 헌성금 갹출에 동참하여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초순 咸趙종사운영회 鏞烋회장과 一濟자문위원께서 도일(渡日)하여 東京에 거주하는 福全 본회고문의 안내를 받아 東京과 關東지방에 살고 있는 一家들을 방문, 桂濟종원과 椋浩종원 그리고 福全고문이 각각 1천만원씩 쾌척하였고 이밖에 많은 일가들도 성의를 표하였다.

또 6·25사변때 피난 내려와 서울등지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咸鏡公派에서도 자진 참여, 헌성금을 서울화수회를 통해 보내왔다.

宗會報를 통해 소식을 알게된 많은 종원들은 성명만 기재한채 운영회 구좌에 송금해오고 있어 사무국은 주소, 직업, 파(派)등을 밝혀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사진= 日本 愛知縣韓國人親友會 會長 趙椋浩 종원이 종사운영회 사무실을 찾아 헌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地自體에 많은 宗員 當選

### 咸趙의 슬기로움 全國에 과시

지난 6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광역, 기초단체장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宗員들이 당선의 영광을 누려 우리 咸安趙氏를 빛냈다.

咸安郡 군수는 大姓의 고장 답게 性暉종원이 많은 표차이로 당선 되었고 군의원도 10개면 가운데 6개면을 석권하였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우리가 차지했다. 釜山동구에서는 형제각이 나란히 당선, 형제의원이 탄생 하였고 大邱市壽城區에서도 우리 宗員 4명이 무더기 당선되어 타향에서도 우리 咸趙 勢를 과시하였다. 흠이라면 代山面에서 一家끼리 입후보, 한一家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는데 종사운영회가 개입하여 조정했어야 했는데 못한점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당선 현황에 따르면 郡守는 咸安과 節度公·仁溪公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全南 谷城에서 당선 되었고 광역의원은 釜山서 2명, 大邱서 1명 京畿도에서 1명이 당선 되었다.

기초의원은 咸安郡 6명, 釜山서 4명, 慶南·蔚山市 2명, 昌原市 1명, 晋州市 1명, 泗川市 1명, 南海郡 1명, 大邱서 4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초 단체장

▲趙性暉(60·同知公派) =咸安郡守

▲趙亨來(46·節度公派) =谷城郡守

◇광역의회의원

▲趙鏞元(48·同知公派) =釜山市의회의원

▲趙修亨(68·顯·節度公派) =釜山市의회의원

▲趙順濟(60·東溪公派) =大邱市의회의원(副會長)

▲趙雄來(48·參判公派) =京畿道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趙鏞文(57·韜巖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

▲趙鉦濟(63·執義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

▲趙庠濟(61·大笑軒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

▲趙壽濟(45·同知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議長)

▲趙碩濟(43·潤松堂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

▲趙顯松(47·大笑軒公派) =咸安郡군의회의원(副議長)

▲趙弘濟(57·參議公派) =釜山東萊區구의회의원

▲趙興來(41·固城公派) =釜山北區구의회의원

▲趙顯坤(59·大笑軒公派) =釜山東區구의회의원

▲趙顯大(56·大笑軒公派) =釜山東區구의회의원

▲趙鏞洙(42·固城公派) =蔚山市시의회의원

▲趙承秀(35·濟·參議公派) =蔚山市시의회의원

▲趙鏞憲(50·斗巖公派) =昌原市시의회의원

▲趙好濟(48·大笑軒公派) =晋州市시의회의원

▲趙玟來(57·大笑軒公派) =泗川市시의회의원

〈3面에 계속〉

## 行列을 사용하여 咸趙뿌리를 잇자

항렬은 같은 혈족(일가)사이에 대수(代數)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문중에서 항렬을 짓는 법칙을 미리 정해두고, 자손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때 이름에 반드시 이 항렬자를 붙이도록 한다.

항렬자는 이름자의 위 또는 아래자에 붙이는데 이것도 미리 정해놓은 위치에 붙여야 한다.

항렬에 따라 이름을 지으면 후손이 많은 가문에서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항렬자를 넣지 않은 이름을 갖게 되면 같은 일가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세대를 구분할 수 없어 일가 간에 거리감을 느끼며 법도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 같은 이름을 피하기 위하여 항렬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를 근간에 와서 많이 볼수 있는데, 반드시 그 집안의 항렬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 항렬자를 몰라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항렬을 잘못 앎으로써 세대가 바뀌고 숙질의 계촌에 혼란을 일으켜 욕되게 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항렬에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름에 항렬자를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올해에 한하여 전국 국민학교 학생들에 한해 개명(改名)을 원할 경우 이름 전면 허용키로 했다한다. 항렬자로 개명코자 하는 일가는 이기회를 이용하기 바란다.

함안조씨의 항렬자는 오행상생(五行相生)으로 水、木、火、土、金자가 붙은 글자를 선택하여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주)항렬표

趙京濟 〈文化部長〉

| 17代 | 18代 | 19代 | 20代 | 21代 | 22代 | 23代 |
|---|---|---|---|---|---|---|
| ○道 | 金○ | ○源 | 木○ | 榮○ | 重○ | ○鎬 |
| 24代 | 25代 | 26代 | 27代 | 28代 | 29代 | 30代 |
| 氵○ | ○植 | 性○ | ○奎 | 鏞○ | ○濟(洞) | ○來(相) |
| 31代 | 32代 | 33代 | 34代 | 35代 | 36代 | 37代 |
| 順○(默) | 在(同)○ | ○欽(鏞) | ○洙 | 東○ | ○煥 | ○培 |
| 38代 | 39代 | 40代 | 41代 | 42代 | 43代 | 44代 |
| 鎭○ | 漢○ | ○根 | 炳○ | ○均 | 鎬○ | ○淵 |
| 45代 | 46代 | 47代 | 48代 | 49代 | 50代 | 51代 |
| 秉○ | ○炫 | 基○ | ○錫 | 泳○ | ○秀 | 炳○ |
| 52代 | | | | | | |
| ○坤 | | | | | | |

咸安發展에 함께 同參합시다

咸安郡 郡議會

議長 趙壽濟(同知公派) 副議長 趙顯松(大笑軒公派)

議員 趙鏞文(韜巖公派) 議 員 趙庠濟(大笑軒公派)

議員 趙鉦濟(執義公派) 議 員 趙碩濟(潤松堂公派)

# 잦은 先祖遺物 도난을 막자

趙相來〈典禮部長〉

작금 전국 유명 사찰 또는 옛날에 지은 진 문화재급 고가(古家) 등에 전문 절도들이 문짝등을 훔쳐가는가 하면 묘소(墓所)앞에 설치한 무거운 석물(石物)을 장비를 동원, 운반해 가는 사례가 허다하고 장물은 서울, 부산등 골동품상에 싼 가격에 팔아 넘겨지고 있다.

우리 咸安趙氏 문중에도 많은 유물들을 도난당했다. 몇년전 郡北面院北洞 채미정 문짝과 하림재 문짝등을 도난 당한 일이 있었고 郡北面下林里 시정공(寺正公)선조 묘역의 석물과 山淸郡 召南里 大笑軒 묘역의 인소입상과 석등(石燈)을 도난당했다.

## 時論

그런데 이번 경우는 완공된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는 세전불 문짝 10장 모두를 훔쳐간 사고가 생겨 재실 관리에 경종이 되고 있다.

咸安郡郡北面沙道里에 위치한 咸安趙氏 十三충의 한분이신 증 參議公 파조(諱 益道) 제실인 유경재(遺敬齋)와 그의 중부(仲父)이신 증 參判公(諱 鵬) 그리고 종형(從兄)이신 固城公(諱 嶔道) 세분의 행적을 영원토록 기리기 위한 三忠祠를 자손들의 정성으로 개보수(改補修)하여 지난 5월 10일 원근(遠近)의 많은 유림과 국내외 경향 각지의 직계, 방계의 자손들이 운집하여 성대한 준공식을 가졌었다.

그 기쁨의 감격도 잠시였을뿐 7월 2일 밤 장비까지 동원한 일당의 도적들이 재실(齋室)의 문짝 열장을 몽땅 훔쳐 달아나 버렸으니 세상에는 돈을 잃었다, 곡식을 도둑 맞았다, 소나 돼지같은 가축을 몰고 가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는 들은 바 있으나 고가(古家)도 아닌 새 건물의 문짝을 정교하게 떼어 가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따지고 보면 황금만능에 눈이 먼 철없는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에 밤잠 편히 자지 못하고 있을 것에 생각이 미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으나 그 귀중한 장물의 사용처가 도덕성이란 아랑곳 하지 않은채 오로지 돈의 축적에만 전력을 쏟아 넣은 졸부들의 고급 별장의 내장 장식용으로 쓰였는지 혹은 그네들이 한 밤의 흥청망청의 유흥비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뿌리는 환락가의 치장재로 둔갑하였는지 참으로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기아(饑餓)의 질곡에서 벗어나 일등국민으로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려면 몸매에 어울리게 알맞게 옷을 지어 입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늦은 감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래도 늦지 않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 우리들의 후대(後代)를 위하여 하늘을 처다봐도 상대의 눈동자를 바라보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家具업계에 새 突風

## 春濟 宗員 유색가구 『줄리앙』 개발

창업한지 6년밖에 안 된 장인가구(匠人家具·사장 趙春濟종원·3호 광고참조)가 가구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春濟종원은 釜山 東萊區 明倫洞에서 大成목재를 경영하다 뜻한바 있어 仁川으로 옮겨 가구업계에 투신, 6년만에 돌풍을 몰고 온 것이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가정용 가구 매출액이 1백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의 놀라운 신장을 기록, 국내 10대 메이커를 크게 앞질렀다 한다.

올봄 시판하기 시작한 유색가구인 「줄리앙」이 월 1천세트 이상 팔리는 히트를 친데다가 후속으로 내놓은 「모자이크 시리즈」가 좋은 반응을 얻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春濟종원은 鷹巖齋공사에 싯가 5백만원에 해당되는 마루판 일체를 기증한 바 있고 일가 「혼수」 마련에 염가 제공을 약속했다. 전국에 2백여개의 대리점이 있어 전국 어디서나 구입이 편리하다.

## 95 大宗會성료 執義公派

95년도 執義公派 대종회가 지난 5월 7일 咸安 무진정 괴산재(槐山齋)에서 2백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임원 선출에서 鏞照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괴산재 보수를 위한 헌성금도 속속 답지되고 있다.

# 男妹博士탄생

## 趙在先宗員 집안에 경사

지난해(94년) 남매(男妹)가 나란히 박사(博士)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

馬山市會原區陽德洞에서 사업하는 趙在先(執義公派)종원의 장남 元鎬종원(36)이 86년 연세대학원을 졸업, 美國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아 94년 「소련 경제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국제경제학박사를 획득, 현재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봉직.

또한 在先종원의 장녀 美媛종원(31)도 慶南大學校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에서 「All's Well That Ends Well과 Measure for Measure의 미학연구」 논문으로 문학박사를 취득, 오누이가 같은해 나란히 박사가 되었다. 美媛종원은 모교 慶南大學校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고있다.

# 37년간 孝子·烈婦표창

## 補化院 趙光濟 宗員의 善行칭송

(大邱)동양의 윤리가 서양의 물질문명에 밀려 쇄퇴함을 안타깝게 생각, 37년전부터 경북도내 孝子 烈婦등을 찾아 표창하고 있는 一家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 月背面 月城洞에 위치한 사단법인 補化院(이사장 趙光濟)이 그곳이다.

1956년 10월 고인이 된 趙鏞孝씨(당시 33세)가 「동양의 윤리도덕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 논 4천평으로 기금을 삼아 補化院을 창건하여 69년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37년 동안 1천99명의 효행, 열행 선행자를 발굴하여 표창하였고 올해도 지난 4월 20일 도내 선행자등 36명에게 표창했다. 鏞孝씨가 별세하자 아들 光濟종원이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大邱市 南區 大明洞에 연건평 8백여평의 補化院會館을 건립하였고 수상자실록이 기록된 「桐常錄」 1·2집 1만7천부를 발간하여 수상자와 전국 각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다.

#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趙終來 外(參議公派·郡北) 82만원
▲趙在鎬 外(郡北) 66만원
▲釜山花樹會影島支會 57만원
▲趙昌孝(全·大笑軒公派·法守) 農業 50만원
▲趙鏞夏(執義公派·蔚山) 50만원
▲趙根濟(執義公派·蔚山) 50만원
▲趙南濟(節度公派·釜山) 한약건재업 50만원
▲趙昺濟(澗松堂公派·釜山) (株)東方 釜山支社長 50만원
▲趙君濟(大笑軒公派·釜山) 中小企業銀行 釜山支店長 50만원
▲趙炯來(東溪公派·大邱) 東光商社 代表 50만원
▲趙重來(參判公派·大邱) 대남직물 代表 50만원
▲趙雲現(咸鏡公派·서울) 서울實業(株) 社長 50만원
▲趙富平(大笑軒公派·蔚山) 現代精工(株) 專務理事 50만원
▲趙學來(東隱公派·釜山) 50만원
▲趙洪來(東隱公派·釜山) 50만원
▲趙顯日(東隱公派·釜山) 大雄機械 社長 50만원
▲趙顯男(大笑軒公派·釜山) 大永産業(株) 社長 50만원
▲咸趙大邱己未會(會長 趙東伯) 50만원
▲釜山北區支會 50만원
▲執義公派栗川公後孫一同 50만원
▲玉奉公晋州宗中 50만원
▲釜山大淵洞分會 50만원
▲蔚山參判公派 봉의後孫宗中 50만원
▲大笑軒公派法守面永慕齋宗中 50만원
▲參判公派高靈부계宗中 50만원
▲節度公派四未堂公安谷宗中 43만원
▲東溪公派가창저대宗中 42만원
▲趙性哲(執義公派·宜寧) 宜寧花樹會長 30만원
▲趙仁奎(參判公派·蔚山) 30만원
▲趙敏奎(斗巖公派·馬山) 馬山花樹會長 30만원
▲趙在奎(孤竹齋公派) (주)해사공사회장 30만원
▲趙辰守(奎·同知公派·釜山) 代理店業 30만원
▲趙鏞守(節度公派·馬山) 30만원
▲趙鏞昊(參議公派·郡北) 西山書堂有司 30만원
▲趙鏞培(斗巖公派·代山) 農業 30만원
▲趙相能(鏞·處士公派·釜山) 商業 30만원

## 宗員動靜

▲趙律來종원‖5월 3일 과학기술처 기회총괄과장으로
▲趙敬來종원‖5월 4일 주택사업 공제조합 대구지점장으로
▲趙鏞虎종원‖5월 10일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장으로
▲趙顯宰종원‖5월 14일 문화체육부 청소년기획관으로
▲趙順濟종원‖5월 15일 한국조선공업협회 전무로
▲趙仁濟종원‖5월 30일 특허청 항고심사관(이사관)으로
▲趙泓來종원‖6월 1일 연합통신 외신국장으로
▲趙鏞先종원‖6월 1일 蔚山市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장으로 피선
▲趙鏞根종원(한성생명(주) 사장)‖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보험회의(IIS)에 참석하기 위해 6월 8일 출국
▲趙鏞汶종원‖7월 12일 서울경찰청 은평경찰서장으로 영전
▲趙義濟종원‖대한체육회 시설과정으로 영전

〈2面에서 계속〉

▲趙成福(53·顯·大笑軒公派)‖南海郡군의회의원
▲趙鏞漢(62·新堂公派)‖大邱壽城區구의회의원
▲趙鏞澤(62·執義公派)‖大邱壽城區구의회의원
▲趙榮載(47·濟·東溪公派)‖大邱壽城區구의회의원
▲趙幸典(41·顯·大笑軒公派)‖大邱壽城區구의회의원

〈기타 市郡에 명단이 입수되지 않아 揭載 못한 점 양해 있기 바란다〉

고속주행 V형 타이어
블랙버드

한국타이어
代表理事
趙洋來 (大笑軒公派)

운전의 새로운 자신감 !

더욱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V형 타이어에 고속주행을 위한 신기술이 살아 숨쉰다 !

한국타이어가 국내최초로 개발한 V형의 일당항 타이어 블랙버드—
탁월한 조종안정성은 물론, 젖길 주행서의 신속한 배수처리 능력, 승차감 향상, 소음의 최소화 등 고속주행을 위한 첨단의 신기술이 살아 숨쉽니다.
빠르게, 안전하게, 부드럽게—
이제부터 블랙버드로 운전의 새로운 자신감을 느껴보십시오.

■고속주행성이 탁월합니다.
■조종안정성이 탁월합니다.
■제동력이 우수합니다.
■저소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코너링시 탁월한 균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수한 배수성능을 발휘합니다.
■고 그립력의 전용 배합고무를 채용했습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으로 품위가 돋보입니다.

# 先祖의 얼 ④

趙晶來 〈문화부차장〉

## 參知公 룐

• 휘 : 욱(昱) 시조
• 부 : 현감 寧
• 조부 : 전서공 悅
• 휘 : 욱(昱) 시조로부터 12세) 참지공 파 조(이제선생의 종제)
• 호 : 竹圃
• 관직 : 병조참지
• 생 : 1432년 세종 14년
• 졸 : 1492년 성종 23년
• 묘소 : 안동 두곡 촌 뒤산 임좌 合附
• 배 : 숙부인 양성 이씨
• 부 : 현감 寧
• 조부 : 전서공 悅

참지공은 조선초기 문장을 떨어나게 잘 짓는 문장가(文章家)로 널리 알려져 있다. 1617년 간송당 선생께서 쓴 갑진보 서발문에는 근세에 뛰어나다고 가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시니 「귀문고와 그림에는 전서공 열」 「청절의 은사(隱士)에 어계공 趙」 「문장에는 육으로는 참지공의 문장이 당대에 으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인 전주 최씨의 꿈에 별을 삼킨 태몽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9살때부터 붓을 잡기만 하면 문장을 이루었으니, 세상사람들은 신동으로 일컬었다고 한다. 1449년(세종 31년)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3년(단종원년) 22세때 문과에 급제하여 만인에 계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치고자 했으나 한스럽게도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함으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은거하니 의분에 넘친 충절이 정절공파 갑자 단종의 승하시에 3년을 복상하고 6신들과는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의 학자인 점필재 선생의 대상이 되었으나 관직을 떠나 始祖의 七賢祠가 있는 安東 운안리에서 사우(師友)들과 꽃을 찾아 즐기고 읍청옹월(挹淸風弄月)로 벗을 지새며 여생을 보냈다.

1492년(성종 23년) 6월 7일 세상을 떠나니 수많은 문하생들과 사대부들의 애도의 행렬이 길을 메웠다.

탁월한 학식과 충지로서 많은 유집이 있었으나 잦은 전란과 후손들의 불찰로 보존하지 못하였음을 통탄할 일이다. 문하로는 어계선생께서 참지공에게 예악을 배웠으며 점필재 선생께서 참지공에게 예의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감공 녕은 태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초임으로 의령현감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으로 지은 삼호정이다.

어계선생께서는 공의 문장에 극찬의 시를 지어 종제의 학문에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자네 문장 뛰어나 일찌감치 벼슬하였구나 6·25동란의 피해로 파괴되어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다.

우리들도 선조의 거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연마를 통하여 어려운 시대에 선인(善人)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鷹巖齋에 병풍 희사

### 鎬敏 宗員 일반宗員에도 實費제공다짐

### 先蹟地 參拜

서예가(書藝家) 雲華 鎬敏종원(光州) 이 漁溪선조의 유시(遺詩)인 구월등고시(九月登高詩) 팔폭 병풍(八片 8백만원 상당)을 咸안재 완공 후 사용하라고 종사운영회에 기증해왔다.

서예가 雲華 鎬敏종원은 여성(餘生)동안 一家들이 원하면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종원은 여성(餘生)동안 一家들이 원하면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大陽齋후손친목회(회장 南渡)회원일동 40여명이 漁溪선조묘소와 西山書院을 참배하고 종사운영회 사장을 둘러보고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

▲5월 21일 節度公榮笑軒公支派 巴諺公 종가 후손 1백50여명(大邱·居昌·金山)의 종원들이 종사운영회 澈溯사무국 장 안내로 郡北面院北里 서산서원, 여계선조 묘소를 참배했다. 하오에도 法守面江洲里 여계선조 묘소를 참배하고 전달중인 응암재 건학했다.

이날 일행은 응암재 건립헌성금도 전달했다.

▲부산 忠毅公事蹟硏究會(大笑軒公派 : 회장 · 顯大)는 지난 6월 11일 회원 45명이 山淸郡 召南里 大笑軒 선조묘소를 참배하고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귀가길에 法守面江洲里 漁溪선조 묘소를 참배한뒤 응암재 중건공사 현장을 견학했다.

▲지난 5월 3일 晋州교육대학 서무과장 國濟종원등 일행 7명이 漁溪선조묘소에 참배하고 응암재공사 현장을 둘러본뒤 종사운영회 사무국에 들러 성금을 전달했다.

##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趙範來(大笑軒公派 · 釜山) 唯興公社 社長 30만원
趙弼來(執義公派 · 釜山) 軍需司管理處長 30만원
趙寧來(節度公派 · 郡北) 農業 30만원
趙鍾來(參判公派 · 釜山) 海雲巡消防署 係長 30만원
趙雨來(大笑軒公派 · 釜山) 大都銀行 部長 30만원
趙翊來(固城公派 · 釜山) 30만원
趙斗來(大笑軒公派 · 釜山) 30만원
趙昌來(芝嶽公派 · 靑松) 農業 20만원
趙鶴來(芝嶽公派 · 大邱) 會社員 20만원
趙特來(芝嶽公派 · 大邱) 會社員 20만원
趙福來(芝嶽公派 · 서울) 事業 20만원
趙点來(執義公派 · 法守) 農業 20만원
趙鵬郁(大笑軒公派 · 居昌) 農業 20만원
趙宰典(顯 · 大笑軒公派 · 大邱) 壽城區 議員 20만원
趙鎭斗(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大鵬(參判公派 · 法守) 農業 20만원
趙泰準(性 · 判決公派 · 大邱) 10만원
趙元齊(全北鎭安) 10만원
趙冬來(詞松堂公派 · 釜山) 在釜詞松堂公宗中會長 10만원
趙珍來(大笑軒公派 · 서울) 前第一銀行支店長 10만원
趙炎來(大笑軒公派 · 崩山) 10만원
趙漢樹(경기도) 10만원
趙乘來(忠州市) 10만원
趙東奎(參判公派 · 崩山) 10만원
趙孟來(芝嶽公派 · 崩山) 10만원
趙鍾璟(同知公派 · 釜山) 畫藝家 10만원
趙漢濟(東淡公派 · 大邱) 會社員 10만원
趙成濟(大笑軒公派 · 釜山) 蓮菜不動産 代表 10만원
趙穆來(參判公派 · 大邱) 농장경영 10만원
趙穆來 8만원(三次)
趙德濟(執義公派 · 馬山) 5만원
趙五濟(大笑軒公派 · 釜山) 5만원
趙熙濟(執義公派 · 大邱) 5만원
趙永鎬(忠南 아산 3만원
趙在烈(水原農村振興廳 3만원
趙大雨(顯 · 大笑軒公派 · 釜山) 30만원
趙在宇(參判公派 · 宗孫) 三星電子(株) 部長 30만원
金山泡雲寺支會 30만원
咸陽花樹會 30만원
大笑軒公派居昌加北宗中 30만원
趙性佳(斗巖公派 · 金海) 農業 20만원
趙完來(節度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珏來(芝嶽公派 · 靑松) 農業 20만원
趙彬來(節度公派 · 法守) 農業 20만원
趙鍾三(監察公派 · 郡北) 西山書院 管理人 20만원
趙鍾浚(大笑軒公派 · 法守) 本會 理事 20만원
趙鍾浩(大笑軒公派 · 郡北) 20만원
趙鍾燮(서울) 20만원
趙鍾邦(節度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鍾禎(參議公派 · 郡北) 20만원
趙鍾貞(參議公派 · 郡北) 20만원
趙鍾鶴(參議公派 · 郡北) 20만원
趙鍾及(監察公派 · 郡北) 下林齋有司 20만원
趙勳濟(大笑軒公派 · 法守) 農業 20만원
趙鉉濟(斗巖公派 · 法守) 農業 20만원
趙季濟(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根濟(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寅濟(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敬濟(參議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琦振(參議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正榮(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三濟(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倫來(參議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秀來(大笑軒公派 · 郡北) 農業 20만원
趙星來(大笑軒公派 · 大邱) 大邱教育大學院 20만원

(大邱) 大邱廣域市 壽城洞에 거주하는 趙萬世(濟61)종원의 딸 京子(20)양이 제11회 全州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국악인으로 성장 가능성을 엿보였다.

## 壯元의 영광차지

### 趙京子종원

경자양은 국민학교 재학때부터 국악에 소질을 보여 萬世종원이 뭣바라지한 보람이 있어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여러차례 출전, 우수상 등 상을 수십차례 받았었다. 京子양은 현재 경복대학교 예술대 국악과에 재학중이다.

## 訃音

본회 고문이시며 경북 青松 咸趙문장 趙鎭泰(광호공파)께서 음력 4월 19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저희 現代自動車를 애용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現代自動車써비스(株)

代表理事 趙 洋 來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

TEL 717-0111